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1년 만에 관광객 185만명 방문 '대박' 간현관광지 일대 '스릴 테마' 관광단지로 업그레이드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기부터 핫한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유료(원주시민 1천원·외지인 3천원)로 전환된 이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져 총 10억4천525만원의 입장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개장 1년 만에 투자액(건설비용 38억원)의 30%가량을 거둬들인 것이다. 덕분에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이는 간현관광지도 오랜 침체기를 극복했다. 출렁다리 개통 전인 2017년 19만명에 불과했던 간현관광지 방문객이 지난해 180만명을 넘어섰다.

원주시는 출렁다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간현관광지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연여름에는 텐트를 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체류형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원주시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내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간현관광지 일대를 '스릴 테마' 관광단지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간현관광지 주차장부터 출렁다리까지 700m 길이의 곤돌라를 설치하고, 삼산천을 가로질러 간현산까지 250m 길이의 유리 다리와 고도 200m에 소라형 계단도 구상하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 원주시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총 185만명을 모으는 등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출렁다리는 인근 간현관광지(유원지)까지 때아닌 호황을 가져다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일 개장한 소금산 출렁다리의 지난 1년간 누적 방문객은 총 185만명에 달했다.

지상 100m 높이에 있는 암벽 봉우리 2개를 연결해 만든 출렁다리는 길이 200m, 폭 1.5m 규모의 산악보도교로 개장한 지 넉 달 만인 지난해 5월



엄청나!

원주소금산출렁다리 이야기입니다. 하늘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 과 '아찔함'을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걸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엄청나!' 서울에서 원주까지 엄청나게 가깝죠? 이번 주말은 원주에서 '엄청나게' 놀아보시죠



원주소금산출렁다리
2019-2020년 한국 관광 100선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뮤지엄 산



강원감영